총선 후보 등록 위해 자료 제출하고 있는 전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전주시에 소재한 지역선관위에서 전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후보등록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무소속 방수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후보자 등록 첫 날… 4·10 총선 대단원 막 올라

전주 곳곳 후보 등록 잇따라

전주을 이성윤·강성희·정운천·김광종

전주갑 김윤덕·신원식·방수형 등 등록

전주병서도 전희재·한병옥 후보 등록 마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21일, 전북지역 격전지인 전주을과 전주갑 지역구에 후보자 등록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위해 가장먼저 온 후보는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후보였다. 곧바로 같은 선거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겠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앞으로 3년은 너무나도 길다. 이 폭적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저 이성윤이 (전주에)왔다"면서 "더 이상의 전북 홀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좀 더 낮은 자세로 발로 뛰고 시민들과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더 다가서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주을 무소속 감광종 후보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며 등장한 뒤 "1번과 2번을 싹 쓸어버리고 치매에 걸린 전주을을 구원해내겠다"고 했다.

이어 후보에 등록한 국민의힘 정운천 전주을 후보는 "전주시민들과 도민들은 중앙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 분노아 아픔을 내가 가능하면 껴안고 3선 의원으로 중량감있게 대통령과 당에 대한 분노를 직접 윤 대통령 또는 정부와 담판을 지어서라도 풀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전주을 후보자들의 등록이 끝난 뒤 전주갑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냈다.

전주갑 후보자들 중 가장 먼저 후보에 등록한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는 "시민들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 우리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저 신원식은 그동안 국정 경험도 있고 도정 경험도 있고, 기업경험도 있는 검증된 인물"이라며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신원식을 지지해준다면 내가 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민생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후보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또 윤석열 정부로부터 굉장히 소외받고 홀대 받았던 우리 전북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면서 "새로운 미래가 오는 시점에서 (전북이)새롭게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발판을 꼭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주갑 후보에 등록한 무소속 방수형 후보는 "지금은 대국민적으로 정권 심판에 대한 선거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이번에 꼭 당선되어서 민주당에 복당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전주병 지역구에는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와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가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편,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익산갑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와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 진보당 전권희 후보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다.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은 22일까지다. /특별취재반

"목표 의석수, 교섭단체 이상"

새미래 오영환 선대위장, "국민이 바라는 정치 위해 최선"

'반지하 주거, 안전한 주거로 전환' 등 기후위기 공약 발표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사진)이 21일 4·10 총선 목표 의석수와 관련해 20석이 기준인 "교섭단체 이상"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새미래의 목표 등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최소 교섭단체 이상을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의 전망, 현재의 지지율은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충분히 저희 새로운미래에 대해 알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변화 등을 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의석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께서 또 그 지역의 시민들께서 새미래의 비전이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선거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이에 앞서 새미래의 '미래 준비' 분야의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와있는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 차액 지원제도와 ESS(에너지저장장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침수 우려 있는 반지하 주거를 안전한 주거로 전환하겠다"며 "기후위기, 기후재난시대, 대재앙으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재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민주 전주 총선 후보들 "원팀으로 압승 일궈낼 것"

김윤덕·이성윤·정동영 등

4·10 총선 필승 연대 다짐

전주시민들에게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전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2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김윤덕 후보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을·병 선거구 김윤덕·이성윤·정동영 세 명의 후보가 21일 선거필승을 위한 연대를 다짐하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공천이 확정된 전북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갑 선거구 김윤덕 후보와을 선거구 이성윤 후보, 병 선거구 정동영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내 3개 선거구의 민주당 압승을 위해 유세지원 등 다각적인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덕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번 총선은 어느 선거보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중차대한 선거여서 전주 3개 선거구 모두 압승을 거둬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며 "전북정치1번지인 전주에서 모두 승리해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김 후보는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을 도와주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호남을 무시하고, 전북을 홀대하면서 전북 발전을 운운하는 껍질뿐인 국민의힘 후보를 윤석열 정권과 함께 심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을 선거구 이성윤 후보는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란 사람이 전국 곳곳을 누비며 민생토론을 빌미삼아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전북의 아들인 채 모 상병 순직을 조사하던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씌우더니 아예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성윤은 더 굳세게 싸워달라는 명령을 받고 고향에 돌아왔고, 망나니 칼춤을 멈추게 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고향분들의 뜻을 받들자고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독재의 환부를 도려내려면 그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성윤을 적극 사용해 주시라"고 역설했다.

병 선거구 정동영 후보는 "오늘 우리 세 사람이 한 팀이 된 것을 보여드렸고, 금명간 10개 선거구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과 압승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전북 정치권이 단단히 규합해야 민주당내에서 힘을 쓸 수 있고, 정권심판은 물론 전북 몫 찾기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북 정치권의 맏형으로서 원팀을 꾸려 힘을 모을 수 있는 역할을 뒤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후보 등록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1일 "정읍고창이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윤준병 후보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5대 실정인 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김건희 명품백 수수·김건희 주가조작 등 '이·채·양·명·주'를 제대로, 또 확실히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으라는 주민과 당의 준엄한 명령을 소명으로 삼겠다"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에서부터 총선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려 무도한 검찰독재 정권으로부터 빼앗긴 민주주의와 정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총선 승리의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특별취재반

남원시의회, 남원 공공의대 추진시민연대, 남원시 애향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남원 국립의전원 정원 강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원 몫 국립의전원 정원 49명 원래대로 남원 의전원에 배정을"

남원시의회·남원 공공의대 추진시민연대 등

남원시의회, 남원 공공의대 추진시민연대, 남원시 애향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남원 국립의전원 정원 강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계획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학교가 142명(기존 서남대 정원 32명 포함)에서 58명 증원된 200명, 원광대학교는 93명(기존 서남대 정원 17명 포함)에서 47명이 증원된 150명이 배정됐다.

남원시는 그동안 폐교된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해 왔고, 의대 정원 49명이 남원 몫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전북대, 원광대에 포함시키면서 기존 서남대 몫 남원 몫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남원지역 인사들은 49명 강탈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처사로 보고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제21대 국회 만료 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49명을 강탈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꼼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강인식 위원장은 "정부는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교묘하게 남원을 비롯한 지리산권 지자체 및 전북을 푸대접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원 몫인 국립의전원 정원 49명을 원래대로 남원 국립의전원에 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